

농어촌공사 김해·양산·부산지사 재해대비 저수지 비상대처훈련

윤 차진형기자 | 승인 2025.05.15 17:18 | 11면

예기치 못한 자연 재난 관계기관 협업 신속 대응 체계 구축



▲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는 지난 14일 김해시 진례면에 위치한 진례저수지에서 '2025년 재해대비 비상대처훈련'을 실시했다. /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

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(본부장 손영식) 김해양산부산지사(지사장 서정훈)는 지난 14일 김해시 진례면에 위치한 진례저수지에서 '2025년 재해대비 비상대처훈련'을 실시했다.

이번 훈련은 집중호우로 인한 제당 비탈면 침식 및 슬라이딩으로 인한 비상 상황을 가정해 관계기관 협업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인명피해 예방 및 응급 복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.

집중호우로 인한 저수지 수위상승을 감지한 '경계단계', 이후 저수지에 이상징후가 발생해 '경보단계'로 전환되며 상황을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'비상단계'에서는 비상방송 등을 통해 주민을 대피시킨 후 마지막 '종료단계'에서는 피해 상황을 복구하고 훈련 결과를 평가하며 마무리했다.

서정훈 김해양산부산지사장은 "기상이변에 따른 재난 대응을 위해 이번 훈련과 더불어 저수지, 배수장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,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"고 말했다. 차진형기자

저작권자 ©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차진형기자